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4월 24일

ISSN 1976-0507 Vol. 1 No. 4

중앙아시아의 블루오션, 아제르바이잔: 한국의 경제협력 추진과제

이 재 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ljiy@kiep.go.kr, Tel: 3460-1089)

신 현 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shin@kiep.go.kr, Tel: 3460-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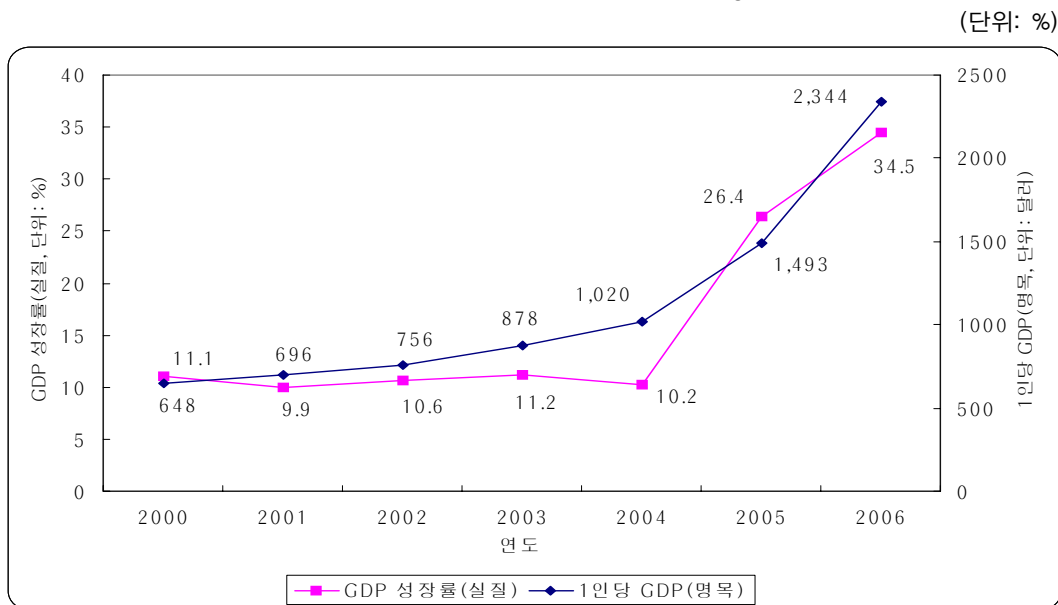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이적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 인프라 및 첨단산업 투자시장, 에너지 투자처이자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5월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한 이후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을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많은 경제적 성과들을 이루어냈음.
- 한국정부는 한·아제르바이잔 민관합동 경제협력 T/F를 구성하여 교역 및 투자 확대, 에너지·자원·인프라 부문 진출, 유무상 원조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2007년 4월 23일부터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경제협력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對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추진과제로 △ 교역 및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 에너지공급원 확보 △ 장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주도 민관합동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

-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국(小國)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산업 중심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한국보다 약간 좁은 국토면적(8만 6,600km²)에 약 8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2005년 26.4%, 2006년 34.5%라는 전대미문의 2년 연속 세계 1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0년 648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도 2006년에 2,344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12월의 월평균 임금은 162달러로 전년동기대비 명목기준 20%, 실질기준 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그림 1.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 동향



자료: Global Insight

- 석유·가스 산업은 2005년 전체 산업생산의 66.7%를 차지할 정도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어 2006년에는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 아제르바이잔 산업생산의 부문별 비중 동향

(단위: %)

구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추출산업(석유·가스)		19.6	53.5	58.7	59.5	56.9	57.5	66.7
공공서비스(전기·가스·수도)		21.0	15.2	12.1	10.5	10.0	8.9	6.8
제조업	전체	59.4	31.3	29.2	30.0	33.1	33.6	26.5
	(식료품)	10.8	3.2	4.8	4.4	4.1	4.9	3.5
	(정유)	26.8	18.4	14.9	14.0	15.4	13.8	10.5
	(금속)	1.5	0.4	0.8	1.4	3.6	4.8	4.1

자료: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zerbaijan in Figures 2006*
(<http://www.azstat.org/publications/azfigures/2006/en/index.shtml>)

- 2006년에 내수시장은 서비스(전년대비 18%), 도소매 및 호텔·요식업(13.5%), 통신(24%), 건설업(8%) 등 전 부문에 걸쳐 고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입 또한 기계설비, 석유제품, 수송기계(자동차 포함) 등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

표 2. 아제르바이잔 수입의 품목별 구성 동향(1~11월 대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05년	2006년
기계설비	1,279 (33.6)	1,424 (30.8)
석유제품	596 (15.7)	709 (15.3)
수송기계(자동차 포함)	358 (9.4)	695 (15.0)
금속	440 (11.6)	515 (11.1)
식료품	448 (11.8)	480 (10.4)
화학제품	159 (4.2)	223 (4.8)
총계	3,802	4,623

주: () 안은 전체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EIU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첨단 IT산업과 운송인프라 중심의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유망 인프라 및 첨단산업 투자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 2006년 자본투자는 전년대비 14.8% 증가한 68억 달러(GDP의 34%)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54%에 달함.
- 정부는 2004년 '석유 및 가스 소득의 운용에 관한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석유 수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SOFAZ)」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1일 현재 이전을 제외한 적립 잔액은 15억 4,600만 달러(13억 3,800만 마나트)임.
- 2007년 2월 1일 현재 SOFAZ 적립금 중 20억 2,500만 달러는 인프라투자, 난민지원 등에 사용되거나 정부재정 및 국영 투자회사 재원으로 이전됨.

표 3.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SOFAZ)의 주요 지출내역

(단위: 백만 달러)

지출내역	지출금액
BTC(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건설	344
난민 보호 및 정착 지원금	261
Oguz-Qabala-Baku 급수시설 건설	96
Samur-Absheron 관개시설 재건	49
정부재정으로 이전	1,171
국영 투자회사의 재원으로 이전	104
총계	2,025

주: 지출금액은 마나트(Manat)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2007년 4월 17일 현재 환율(1달러=0.8654마나트) 기준으로 달러화로 변환함

자료: SOFAZ 홈페이지(http://www.oilfund.az/index_en.php?n=19001, 검색일: 2007년 4월 17일)

-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발전을 위한 국가 IT 전략 2003~12」를 수립하고 EBRD와 협력 하에 통신인프라 및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대 산업인 에너지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관 개발, 파이프라인의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7월 기준 카스피해 지역 전체 석유 매장량의 16.5%와 가스 매장량의 11.6%를 보유(총매장량 기준¹⁾)하고 있는 에너지 부국으로서, 세계의 새로운 에너지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70억 배럴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0.8%에 불과하나, 잠재매장량이 320억 배럴에 달하고 R/P Ratio²⁾도 42.4로 높아서,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음.
- 2005년 외국인투자 45억 달러 중 90%가 넘는 41억 달러가 석유부문으로 집중되었음.

표 4.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2006년 7월 기준)

(단위: 석유: 십억 배럴, 가스: 조 입방피트)

국가	석유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잠재매장량	총매장량		확인매장량	잠재매장량	총매장량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아제르바이잔	7	7	32	39	39	30	35	65
이란	0.1	0.1	15	15.1	15.1	0	11	11
카자흐스탄	9	40	92	101	132	65	88	153
러시아	0.3	0.3	7	7.3	7.3	n/a	n/a	n/a
투르크메니스탄	0.55	1.7	38	38.55	39.7	71	159	230
우즈베키스탄	0.3	0.59	2	2.3	2.59	66.2	35	101
카스피해 지역 전체	17.2	49.7	186	203.2	235.7	232	328	560

자료: EIA, Caspian Sea Region: Survey of Key Oil and Gas Statistics and Forecasts

(http://www.eia.doe.gov/cabs/Caspian/images/caspian_balances.xls)

- 석유·가스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최근에도 많은 해

- 1) 총매장량은 [표 4]에 근거하여 확인매장량과 잠재매장량을 합한 매장량이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카스피해 지역 전체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확인매장량에 잠재매장량을 합한 총매장량 기준으로 산출함.
- 2) R/P 비율은 매장량/생산 비율(Reserves/Production ratio)을 줄여 부르는 말로, 특정 연도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것임. 원래는 미국 석유회사들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지 추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쓰였던 방법이나, 최근에는 특정국이 향후 특정 연도의 생산량과 동일한 석유를 생산할 경우의 가채연수를 나타냄.

외 석유기업들이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인 AIOC(The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on Company)³⁾는 1994년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체결한 30년 계약의 생산물분배협정을 통해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을 개발, 1997년부터 석유·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 ACG 유전은 AIOC가 바쿠 인근 해상에 개발한 아제르바이잔 최대 유전으로 확인매장량이 54억 배럴에 달하며, AIOC는 2020년까지 ACG 유전의 연간 원유생산량을 국가 전체 생산량의 1/3 수준인 5억 배럴까지 끌어올릴 계획임.⁴⁾
 - 2005년 5월 BP를 주 운영사로 하여 SOCAR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10개 해외 석유회사가 참여한 BTC 프로젝트 컨소시엄은 ACG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새로운 수출로로서 BTC 송유관⁵⁾을 개통하였음.
 - 2006년 12월 주운영자 BP, Statoil을 비롯한 7개 석유회사 컨소시엄은 아제르바이잔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샤-데니즈(Shah Deniz) 가스전과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수출할 남카프카스 송유관(South Caucasus Pipeline)을 개발, 개통하였음.⁶⁾
- 중앙아시아·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카스피해의 석유 및 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의 중심지임.

– 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대립 과정에서 아제르

-
- 3) AIOC는 BP를 주 운영사로 하여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인 SOCAR(The State Oil Compan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와 9개 외국 석유회사의 총 10개사로 이루어진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임.
- 4)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생산은 SOCAR와 AIOC가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는데, SOCAR의 석유생산은 정체하는 반면 AIOC의 석유생산은 최근 ACG 유전의 생산량 급증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AIOC의 석유생산은 국내 총생산량 3,230만 톤 중 2,330만 톤으로 72.1%를 기록하였음.
- 5) BTC 송유관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경유, 터키의 제이한(Seyhan)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767km의 송유관임. 본 송유관은 ACG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연간 5천만 톤 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6) 샤-데니즈 가스전의 개발과 남카프카스 가스관의 건설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2006년 12월 15일 샤-데니즈 가스전에서 첫 생산된 가스가 남카프카스 가스관을 통해 수출되었음. 샤-데니즈 가스전에서는 연간 86억m³의 가스가 생산될 전망이며, 이는 남카프카스 가스관을 통해 그루지야를 거쳐 터키로 운송됨.

바이잔은 친서방정책 기조하의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통해 강대국들간 경쟁의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란·터키 등 이슬람문화권 및 중동국가들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다른 중앙아시아국가들과는 달리 CACO(중앙아시아협력기구), EurAsEC(유라시아경제공동체), ECO(경제협력기구), SCO(상하이협력기구),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등 주요 CIS내 다자간 협력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터키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터키와 같은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투르크 협력(Turk Cooperation)’ 과 이란이 투르크 협력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한 ‘카스피해 협력(Caspian Cooperation)’ 에 동시에 가입하여 카스피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마찰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⁷⁾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지역 석유·가스 운송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석유·가스의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석유 및 가스 운송인프라 건설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2005년에 개통된 BTC 송유관과 2006년에 개통된 남카프카스 가스관을 통해 카스피해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는 기존 루트인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음.

2. 노무현 대통령 순방 이후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의 성과

- 한국정부는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순방 이후 아제르바이잔을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반을 두어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산업자원부에 한·아제르바이잔 민관합동 경제협력 T/F(이하 경협

7) 소련으로 편입되기 이전 이란의 영토였던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카스피해를 공유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같은 나라였다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지금도 이란내에는 서북부의 East Azerbaijan과 West Azerbaijan주를 중심으로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의 아제르족이 살고 있음. 또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이란 방문, 양국 외교장관 교환 방문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음.

T/F를 설치(2006년 6월)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은 경제개발부를 한국과의 경제 협력 총괄기관으로 지정(2006년 8월)하였음.

- 이후 한국정부는 아제르바이잔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2006년 8월)하고, 아제르바이잔 경제사절단이 방한(2006년 10월)하였으며, 양국에 대사관을 정식 개설⁸⁾하였음.
- 경험 T/F를 중심으로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STX, 대우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은 조사단을 아제르바이잔으로 파견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왔음.
-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통령은 2007년 4월 23일부터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양국 경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순방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임.
- 방한 기간 동안 양국간 많은 경제협력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방한 기간을 전후하여 한국정부와 정부 유관기관 주최로 다양한 경제행사들이 열렸거나 혹은 열릴 계획임.

가. 교역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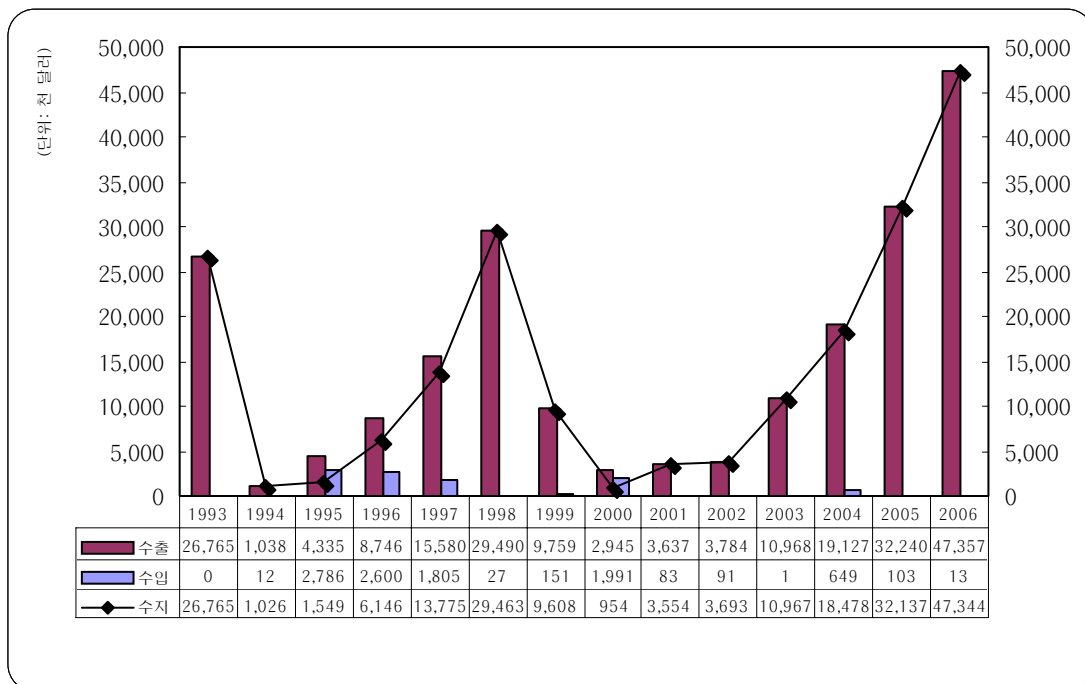
- 2006년 한·아제르바이잔 교역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순방 이전인 2005년에 비해 46.5% 증가한 4,737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 위주의 무역 불균형 현상은 심화되었음.
- 2006년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은 전년대비 46.9% 증가한 4,735만 7천 달

8) 아제르바이잔 주재 한국대사관은 2007년 1월에, 한국 주재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은 2007년 4월에 공식 개설됨.

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87.0%나 감소한 1만 3천 달러에 그쳐,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무역불균형이 전년대보다 오히려 심화되었음.

- 수출은 단기 증감현상이 반복되다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6년 한국의 수출대상국 227개국 중 115위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수출의 0.03%에 불과하여 한국의 수입대상국 226개국 중 212위에 그쳤음.

그림 2.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교역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www.kita.net)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입이 적은 이유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시장 또한 송유관이 연결된 주변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임.
- 2005년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전체 수출의 76.8%를 기록하였고, 주요 수출대상국은 이탈리아, 독일 등 EU 국가와 그루지야,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 주변국임.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이 급증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심한 무역불균형은 양국간 경제협력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출확대와 아울러 우수한 수입품 발굴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 자동차, 플라스틱·고무, 기계·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2006년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은 자동차가 전년대비 67.9% 증가하면서 최대 수출 품목에 올랐으며, 거의 전 품목에서 고르게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음.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입은 매우 작고, 일회성 수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분석의 의미가 거의 없음.

표 5.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품목별 수출입 현황(상위 5개 품목, 2006년)

	수출		수입	
	품목	금액(천 달러)	품목	금액(천 달러)
1	자동차	28,186	정밀기기	8
2	플라스틱·고무	10,366	화학	2
3	기계·전기·전자	6,426	기계·전기·전자	2
4	정밀기기	1,405	섬유제품	1
5	화학제품	691	-	-
총계	47,357		13	

주: HS 2단위를 기준으로 22개 품목으로 재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www.kita.net)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해외직접투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이후 투자가 전 부문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투자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 2006년 12월 말 현재 수출입은행에 신고된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는 도 소매업 분야에서 신고건수 1건에 신고액 2만 달러, 투자액 5천 달러에 불과함.
-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이후 경협 T/F가 아제르바이잔과의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STX에서 조선, 해운, 항만, 발전 등에,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냉장고, 에어컨, 섬유 등에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측도 기타 식품가공 및 음료 부문에서 한국측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나. 에너지·자원·인프라

- 한국은 자주개발원유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해상 이남(Inam) 광구의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5월 1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국영 석유회사 SOCAR와 카스피해 해상 이남 광구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그러나 최근 SOCAR측과의 협상이 지분양도 조건에 관한 의견차로 인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지분보유사인 Shell측과도 지분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임.

※ 이남 광구 지분보유 현황: SOCAR 50%, BP(사업권자) 25%, Shell 25%

- 한·아제르바이잔 양국은 2006년 5월 정상외교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한·아제르바이잔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8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양국은 향후 광물자원 공동탐사, 광업 관련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제르바이잔 원유의 도입 및 한국의 석유 비축시설 공동활용, 원유 수출 및 저장시설 설치 등의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아제르바이잔 환경자원 부간 자원협력 MOU가 체결될 전망임.

- 아제르바이잔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고 교통 및 주거 인프라가 열악하여 한국이 전력·교통·주거 등 인프라 확충에 참여해줄 것을 희망해왔으며, 이에 한국은 민관 합동으로 아제르바이잔 인프라부문 진출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관계 부처와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화력발전소 건설, 풍력발전소 건설, 조선소 건설, 신행정도시 건설, 바쿠시 개발, 도로건설, 교통통제시스템 도입, 철도 협력, 수자원 협력, 바쿠항만 이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주관기관 간 MOU 체결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표 6. 한·아제르바이잔 인프라부문 협력 MOU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체결기관(한국/아제르바이잔)
민자발전사업(IPP) MOU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한국전력/경제개발부
풍력발전 MOU	풍력발전 사업분야 진출	STX/산업에너지부
조선소 건설 MOU	조선소건설 프로젝트 참여	STX/아제르 투자회사
신행정도시 건설 MOU	신도시개발 경험 전수, 프로젝트 참여	건교부/환경자원부
바쿠시 개발 MOU	바쿠 도심 재정비 및 재개발 참여	건교부/환경자원부
도로 건설 MOU	교통인프라 사업의 포괄적 협력	도로공사/도로청
교통통제시스템 MOU	서울의 교통통제시스템 전수,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	건교부/교통부
철도협력 MOU	철도건설인프라 사업의 포괄적 협력	건교부/교통부
수자원협력 MOU	수자원 및 상하수도 분야 사업 참여	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다. 유무상 원조

- 재정경제부는 아제르바이잔을 2007년 경제개발경험전수사업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경제개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방문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현재까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EDCF 지원 사례는 없으나, 향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감안하여 EDCF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전자인증사업과 관세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EDCF 차관 신청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3.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추진과제

가. 교역 및 투자 확대

-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신흥 수출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역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 자본재 및 고부가가치 소비재에서 비교우위가 명확하나 그동안 수출시장 개척 및 체계적인 수출지원책 부재로 교역실적의 변동이 심했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중앙아시아시장에 비해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일본제품의 수요가 높은 편이나,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한다면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과 아제르바이잔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부문이 IT, 건설, 운송 등 첨단산업 및 인프라 부문으로 상호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 부문을 중심으로 對아제르바이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가스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경제성장동력을 다원화하기 위해 각종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및 IT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한국이 참여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국가나 기업에 대해 유전개발 참여시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건설 인프라 부문과 동반 진출(package deal)할 필요성이 있음.

표 7.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투자 유망 부문

투자 유망 부문	내용
도시 재개발·신도시 건설	국민소득 상승으로 신규 주택 및 주거 인프라에 대한 수요 급증
파이프라인 산업	송유관 및 가스관 수요에 비해 철강산업이 매우 취약
발전소 건설	산업에 필요한 전력 부족, 수력·화력·풍력 발전소 수요 증가
교통인프라 건설	물류운송에 필요한 신규 도로 건설 및 개보수 수요 급증
섬유산업	연간 30만 톤 규모의 목화 생산, 대통령이 섬유산업 활성화 지시
석유화학산업	숨가이트 석유화학단지의 재건 추진, 석유의 고부가가치화
IT산업	산업다각화 핵심산업, 「국가 IT 전략 2003~2012」

- 아제르바이잔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관 합동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對아제르바이잔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조사의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한국 민간기업이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거나 혹은 아제르바이잔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정부간 협력관계 구축 및 MOU 체결이 필수적임.
- 아제르바이잔은 성장성과 시장성이 높은데다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 경쟁력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처로서 가치가 높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다양한 투자설명회, 전시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나. 에너지 공급원 확보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후발주자로서, 민관공조를 통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개발 선행주자인 서구 선진국 및 중국, 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로비가 중요한 변수임.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권은 시장이 아닌 국영석유회사 및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에너지공급원 확보 전략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남 광구 지분인수의 성공 여부 및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별도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에너지개발 파트너로서의 한국 이미지 개선과 신뢰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업들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과 타산업과의 연계성에 기반을 둔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카스피해 해상 대형 광구들은 이미 서방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육상광구의 개발 여지가 충분함.
- 육상광구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석유가 채취되었으나 여전히 가채매장량이 많이 있으며, 현재 중국, 독일, 터키 등이 해상광구보다 자본이 적게 드는 육상광구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자국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석유·가스 개발과 함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동반 진출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수요에 입각한 적극적인 유무상 원조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구소련국가들의 투자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전히 가격 및 기술경쟁력보다 인맥, 친분관계 등 사적 요인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에 적극적인 유무상 원조를 제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EDCF 차관 제공이나 경제개발경험전수사업 이외에 특정산업 인프라 건설 원조는 그 사업에 대한 아제르바이잔내 입지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IT 인큐베이터 또는 IT 교육기관의 무상 건설은 현지 IT인력의 고용을 창출하고 친한(親韓) IT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장기적인 IT산업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관·재계 주요 인사와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를 양국간 공식 또는 비공식 외교채널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앙아시아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전체 국가와 양자 및 다자간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관·재계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는 ‘한·아제르바이잔 포럼’을 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민관공조의 적극적인 문화·교육 협력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최근 아제르바이잔 주재 한국대사관의 설립을 계기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던 양국 문화교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현재 양국 문화교류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한·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협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지 대학에 한국학과 설립, 유학프로그램 활성화, 연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적인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